

王好古의 生卒년에 대한 小考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¹

金容辰¹ *

An Investigation of the Year of Birth and Death of Wanghogo

Kim Yong-jin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Wanghogo(王好古), a famous physician of the Geum-Won(金元) period, inherited the theories of Jangwonso(張元素) and Igo(李古), and made great contribution to the spread of the medical theory of the Yeoksu school(易水學派). In Korea, studies on Wanghogo(王好古) is growing, but that on his life is still undeveloped.

The year of his birth and death, as proposed by Wangwaljeong of the Cheong(淸) dynasty, was around 1200 and 1264. However, through thorough examination of the records and context along with the relation between Wanghogo(王好古) and his teacher Igo(李古)'s works, the author finds that Wanghogo(王好古) was born around the year of 1230, and died around 1308.

Key Words : Wanghogo(王好古), Wangwaljeong, birth, death

I. 序 論

王好古는 金元時代 易水學派의 著名한 醫家中의 한사람이다. 그는 『內經』에 정통하고 仲景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張元素와 李杲의 학문을 계승 받아 發展시켜 易水學派의 醫學理論을 後世에 전하는데 커다란 貢獻을 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豊富한 臨床實踐과 결합하여 陰證學說을 창립하였다. 이러한 王好古에 대하여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卒業準備委員會에서 『國譯 湯液本草』¹⁾, 『國譯 此事難知』²⁾, 『醫壘元戎』³⁾

등을 翻譯하였고, 趙炳日⁴⁾⁵⁾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및 藥物 및 傷寒理論에 대한 研究가 있고, 趙炳日⁶⁾의 博士學位論文으로 『陰證略例』에 대한 研究가 우리나라에서 進行되었다.

그러나 王好古의 生涯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進行된 바가 없으며, 中國醫學史를 다루는 教材마다 다르게 되어있으나 이를 제대로 考證하지 못하였다. 이에 筆者는 王好古의 生卒年代에 대하여 研究한 바를 報告하는 바이다.

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7.

3)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1期卒業準備委員會 譯. 醫壘元戎. 서울. 醫聖堂. 1998.

4)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5)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藥物 및 傷寒理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7. 20(1).

6) 趙炳日. 陰證略例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 교신저자 :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學教室, 042-280-2626, E-mail : king@dju.kr
접수일(2009년 4월 18일), 수정일(2009년 5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1)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9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2)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0期卒業準備委員會

II. 本 論

1. 生涯

王好古는 字가 進之이고 號는 汝莊이고, 晚號는 海藏老人으로 趙州(古趙라고도 하며, 지금의 河北省 趙縣이다)사람이다. 대략 1230年頃에 出生하여 1308年頃에 卒하였다고 추정된다.

王好古의 친구인 麻革信之는 『陰證略例·序』에서 “海藏先生王君進之는 家世趙人이라 早以通經舉進士하고 晚獨喜言醫러니 始從東垣李明之하야 盡傳其所學이라 後乃精研極思軒岐以來諸家書하야 馳騁上下數千載間에 如指諸掌이라(海藏 王進之 선생은 집안 이 대대로 趙나라 사람이다. 어려서는 經書에 통달하여 進士에 등용되고 나이가 들어서 는 유독 醫를 말하기를 좋아하였더니 처음에는 東垣 李明之선생을 따라서 그 배운 바를 다 傳하였다가 後에 軒岐과 岐伯 이래의 諸家書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끝까지 思索하여 위아래로 수 천 년 사이를 달리기를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다.)”⁷⁾고 하여 王好古가 총명하고 經史를 통달하였으며 醫方을 좋아하였고 進士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李東垣先生에게 醫學을 배우며 『內經』이하 많은 醫書를 세밀하게 연구하여 醫學에 통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李時珍은 『本草綱目·序例上·歷代諸家本草』에서 “好古는 東垣高弟요 醫之儒者라(好古는 東垣의 으뜸가는 제자이고 醫學의 선비이다.)”⁸⁾고 한 것으로 보아 王好古는 일찍이 李杲와 함께 張元素에게 醫學을 배우다 張元素가 죽은 후 다시 李杲에게 의학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好古는 張元素(1151年~1234年)와 李杲(1180年~1251年)에게 醫學을 배우면서 『內經』이하 많은 醫書들을 연구하였으므로 傷寒學說과 脾胃內傷學說을 有機的으로 結合할 수 있었다. 그의 陰證學說은 後世 많은 醫家들의 關心을 끌게 되었고 東洋醫學의 內容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王好古의 弟子에 대하

여 麻信之는 『陰證略例·序』에서 “門人丘甫蔽와 張과 宋延圭와 張可와 弋穀英同校正이라(門人인 丘甫蔽와 張과 宋延圭와 張可와 弋穀英이 함께 校正하였다.)”⁹⁾고하였으므로 이 다섯 사람이 모두 王好古의 弟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後에 그들에 관한 기록을 전혀 없고 著作도 찾아보지 못했으며 生平과 學術思想도 考察할 資料가 없다.

王好古의 生卒年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王好古가 著述한 年代를 根據로 考證하였으니 王好古의 『此事難知·自序』에 “至大改元秋七月”¹⁰⁾이라고 하였으니 그 시기는 1308年으로서 이때까지 王好古는 아직 생존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1260년부터 1264년까지 살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그러나 “至大改元”이란 네 글자에 대하여 淸나라 同治三年(1864年)에 汪日楨(1812年~1882年)은 『陰證略例·後序』에서 “唯此事難知는 自序題至大元年하니 則上距金亡已七十餘年이니 豈海藏享上壽至武宗時猶存耶아 抑至大當是至元刊本之訛耶아 並書以俟考라(오직 『此事難知』는 自序에서 至大元年(1308年)이라고 하였으니 이때는 金나라가 멸망한지 七十餘年이 되었으니 어찌 海藏先生이 武宗때까지 살아 계셨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至大는 그 당시인 至元刊本の 錯誤인 것인가? 이것을 記錄하여 다른 學者들이 考察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¹¹⁾고 하였으니 사람이 100세를 넘어서도 醫書를 著述하였다는 것에도 疑惑이 생기기 때문에 至元(1264年)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主張을 하였다.

現代의 醫學史關聯 書籍에 나타나는 王好古의 生沒年代에 대하여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우선 生沒年代가 1200年~1264年이라는 主張은 北京中醫學院¹²⁾, 傅維康¹³⁾, 甄志亞¹⁴⁾, 裘沛然¹⁵⁾, 맹

7)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2.

8)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上冊.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8. p.6.

9)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2.

10)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此事難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5.

11)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1.

12)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122.

13)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288.

웅재¹⁶⁾, 常存庫¹⁷⁾ 등의 著書에 記錄되어 있다.

다음으로 1200年頃에 出生하였으나 卒年은 未詳이라는 主張은 嚴世芸¹⁸⁾, 李經緯¹⁹⁾, 趙法新²⁰⁾, 尹暢烈²¹⁾ 등의 著書에 記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과 다른 主張들인데 孔健民²²⁾은 『醫墨元戎』이 1291年(至元28年)에 著述되었고, 『伊尹湯液仲景廣爲大法』이 1294年(甲子年 至元31年)에 著述되었고, 『湯液本草』는 1298年(大德2年 戊戌年)에 完成하였고, 『此事難知』는 1308年(至大元年 戊申年)에 著述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史蘭華²³⁾도 『湯液本草』는 1289年(至元26年)刊行되었고, 『此事難知』는 1308年(至大元年)에 刊行되었다고 하였다.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²⁴⁾는 『陰證略例』는 端平3年인 1236년에 完成되었고 1243年(純佑3年)에 刊行되었다고 하였고, 『此事難知』와 『湯液本草』는 1308年(至大元年)에, 『醫墨元戎』은 1291年(至元28年)에, 『痲論萃英』은 1237年(嘉熙元年)에 完成되었다고 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韓中醫學史概說²⁵⁾과 강좌중국의학사²⁶⁾에서는 1210년에서 1310년까지 生存하였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學者들의 研究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1200年에서 1264年 까지 生存하였다는 主張은 清代 汪曰楨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은 王好古의 著書에서 대부분은 干支로 年代를 표시하였는데, 다만 『此事難知』에서만 年號를 使用하였다. 清代의 汪曰楨이 年號를 使用한 唯一한 部分을 무시하고 무엇을 근거로 干支로 著述年代를 추정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王好古가 自身の 序文에서 기록한 “至大元年”이라는 部分을 무시하지 않고 이를 尊重한다면 王好古가 그때까지 生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1264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인 李杲가 1231년에 『內外傷辨惑論』을, 1249년에 『脾胃論』을, 1250년에 『珍珠囊指掌補遺藥性賦』를, 1251년에 『蘭室秘藏』, 『醫學發明』, 『活法機要』를 著述하였다고 하니²⁷⁾ 汪曰楨의 主張대로 『陰證略例』가 1232년에 그리고 『湯液本草』가 1238년부터 1248년에 걸쳐 지어진 것이라고 하면, 스승인 李杲보다 더 빨리 활발한 著述活動을 하였다는 것이 되니 醫學을 배우는 사람이 스승보다 먼저 著述活動을 한다는 것은 常識의으로도 理解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著名醫家들의 著述活動을 보면 거의 自身の 理論이 完成되어가는 생의 末年에 活潑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王好古의 著述에 대한 刊行年代는 汪曰楨이 主張한 年代에서 60년을 더하여 1290年代에서 1308년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이 옳고, 그의 卒年 또한 1308年 以後라고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1200년에 태어났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 당시의 政治·文化·社會의인 狀況으로 보아 100歲를 넘게 산다는 것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王好古의 出生年度에 대하여서도 明確하지 않으므로 推測을 할 수 밖에 없다.

王好古의 친구인 麻革信之는 『陰證略例·序』에서 李杲에게 의학을 배웠다고 하였으며, 清代 汪曰楨은 『

14)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60.
 15) 裘沛然.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69.
 16) 맹웅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웅석 율길. 각가학설-중국편. 서울. 대성의 학사. 2001. p.172.
 17) 常存庫. 中國醫學史.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p.106.
 18) 嚴世芸. 中國學術史. 서울. 一社. 1991. p.229.
 19) 李經緯, 林昭庚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474.
 20) 趙法新, 胡永信, 雷新強, 丁紅戰. 中醫文獻學辭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27.
 21) 尹暢烈. 韓中醫學各家學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6. p.343.
 22) 孔健民.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31, 262.
 23) 史蘭華. 中國傳統醫學史. 北京. 科學出版社. 1992. p.329.
 24)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2002. p.95, 257.
 25)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295
 26)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외6인. 강좌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 학사. 2006. p.235.

27) 劉時覺 編. 宋元明清醫籍年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p.18-21.

陰證略例·拔』에서 王好古는 어려서 聰明하였고 進士에 及第하였으며, 醫學을 張元素(1151年~1234年)에게 배웠고 또 李杲(1180年~1251年)에게도 醫學을 배웠다고 하였다. 이 文章을 分析해 보면 아마도 王好古는 張元素에게 醫學을 배울 기간이 짧았고 또 어렸기 때문에 張元素가 죽자 李杲에게 다시 醫學을 배웠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張元素가 卒한 1234년에 王好古는 아직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歲에서 20歲사이라고 가정하면 王好古의 出生年度는 1214年에서 1224年 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麻革信之의 말대로 王好古의 스승이 李杲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極端의으로 아주 어린 나이인 5~6歲정도부터 張元素에게 배우다가 張元素가 죽자 李杲에게 계속 醫學을 배워 진정한 스승은 李杲라고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1220年代 후반이나 1230年代 초반이 王好古의 出生年度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보아 王好古는 1210年에서 1230年 사이에 出生하여 1308年 정도에 卒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기는 問題點이 또 하나 있다. 만약 1210年에 태어나서 1308년까지 살았다면 무려 98歲 까지 生存하여 그 當時의 時代 狀況에 비추어 보면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것이 된다. 보통 사람들이 60~70歲 정도 까지 살았다고 가정해 보면, 王好古는 1230年代 前後로 出生하여 1308年 前後까지 生存하여 대략 80歲 前後를 살았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II. 結 論

王好古는 字가 進之이고 號는 汝莊이고, 晚號는 海藏老人으로 趙州(古趙라고도 하며, 지금의 河北省 趙縣이다)사람이다. 대략 1230年 頃에 出生하여 1308年 頃에 卒하였다고 추정된다.

『陰證略例·序』에서 王好古의 친구인 麻革信之는 王好古가 어려서 총명하고 經史를 통달하였으며 醫方

을 좋아하였고, 進士로 本州의 教授로 되어 提舉를 겸하며 內醫學을 관리하였다고 하였으며, 李東垣先生에게 醫學을 배우며 『內經』이하 많은 醫書를 세밀하게 연구하여 醫學에 통달하게 되었다고 한 것과, 李時珍이 『本草綱目·序例上·歷代諸家本草』에서 王好古는 일찍이 李杲와 함께 張元素에게 醫學을 배우다 張元素가 죽은 후 다시 李杲에게 醫學을 배웠다고 한 것으로 보아, 王好古는 많은 名醫처럼 어려서 聰明한 資質로 많은 工夫를 하였고 벼슬을 하면서 醫學을 工夫하게 되었다.

그는 張元素에게 醫學을 배우다가 張元素가 죽자 同門受學한 李杲에게 계속 醫學을 배웠다고 한다. 이 부분이 바로 王好古의 生沒年代를 推定할 端緒가 되는 것으로, 張元素에게 많은 부분을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李杲에게 계속하여 醫學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張元素의 沒年인 1234年보다 그리 멀지 않은 때에 王好古가 出生하였다고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清代의 汪曰楨은 『陰證略例·跋』에서 至大元년이 잘못된 것이라고 主張하였고, 후세의 다른 學者들도 이 의견에 따라서 王好古의 沒年을 1264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考察하였다. 첫째 스승인 李杲가 1231년에 『內外傷辨惑論』을, 1249년에 『脾胃論』을, 1250년에 『珍珠囊指掌補遺藥性賦』를, 1251년에 『蘭室秘藏』, 『醫學發明』, 『活法機要』를 著述하였는데, 王好古의 著述이 汪曰楨의 主張대로 라면 대부분이 1232年에서 1248年 사이에 著述되었다고 하니, 弟子가 스승보다 먼저 著述活動을 하였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思料된다. 둘째 王好古의 著述에서 대부분은 干支로 發刊年度를 나타내었지만 『此事難知』에서는 至大元년이라고 하여 1308年이라고 하였으니, 著者が 그 當時의 年號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記錄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1308년까지는 生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王好古는 1230年代 前後로 出生하여 1308年 前後까지 生存하여 대략 80歲 前後를 살았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參考文獻

1.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60.
2. 孔健民.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31, 262.
3. 裘沛然.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69.
4.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외6인. 강좌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235.
5. 맹웅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용석 옮김. 각가학설-중국편.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172.
6.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288.
7.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122.
8. 史蘭華. 中國傳統醫學史. 北京. 科學出版社. 1992. p.329.
9. 常存庫. 中國醫學史.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p.106.
10. 嚴世芸. 中醫學術史. 서울. 一中社. 1991. p.229.
11.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9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12.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0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7.
13.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1期卒業準備委員會 譯. 醫壘元戎. 서울. 醫聖堂. 1998.
14. 劉時覺 編. 宋元明清醫籍年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p.18-21.
15. 尹暢烈. 韓中醫學各家學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6. p.343.
16. 李經緯, 林昭庚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474.
17.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上冊.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8. p.6.
18. 趙法新, 胡永信, 雷新強, 丁紅戰. 中醫文獻學辭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27.
19.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藥物 및 傷寒理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7. 20(1).
20.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21. 趙炳日. 陰證略例에 대한 研究. 大田, 大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22.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2002. p.95, 257.
23.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2, 111.
24.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此事難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5.
25.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295

